



젠더이슈 Gender Issue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이슈 분석

2021년 제9호

놀이와 쉼이 있는 돌봄, 우리동네키움센터의 과제

류임량(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본부)

“아동의 놀이와 쉼 중심이 되어야 하지만, 기관마다 차이를 보임”

“학습지원을 하는 키움센터 - 전체의 64.1%”

“아동친화적 환경 및 놀이와 쉼 보장을 위해서
시설 환경 지원 및 종사자의 역량 강화 필요”

전문보기



서울시여성가족재단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all rights reserved.

본 메일은 발신전용이며,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개인정보수정에서 수신동의 내역을 거부로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06939)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대방동), 대표전화 02-810-5000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시민서비스현장 바로가기

서울시여성가족재단 클린신고센터 hot line 02-810-5401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인권경영

놀이와 쉬이 있는 돌봄, 우리동네키움센터의 과제

류임량(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본부)

서울시는 2018년 중앙정부의 ‘온종일돌봄’ 정책에 맞춰 「온마을 아이돌봄 체계」 구축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우리동네키움센터를 확충해왔다. 우리동네키움센터는 돌봄사각지대에 있던 초등 아동에게 필요한 돌봄을 제공하는 한편, 자녀 돌봄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여성들이 노동시장으로 재진입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우리동네키움센터 확충 4년차를 맞아 키움센터의 ‘놀이와 쉬’ 중심, ‘아동최우선 원칙’이라는 고유한 철학과 원칙을 실현하고 있는지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 이에 우리동네키움센터 종사자와 시설 환경 측면에서 전문성을 어떻게 강화할지 살펴보고 정책과제를 모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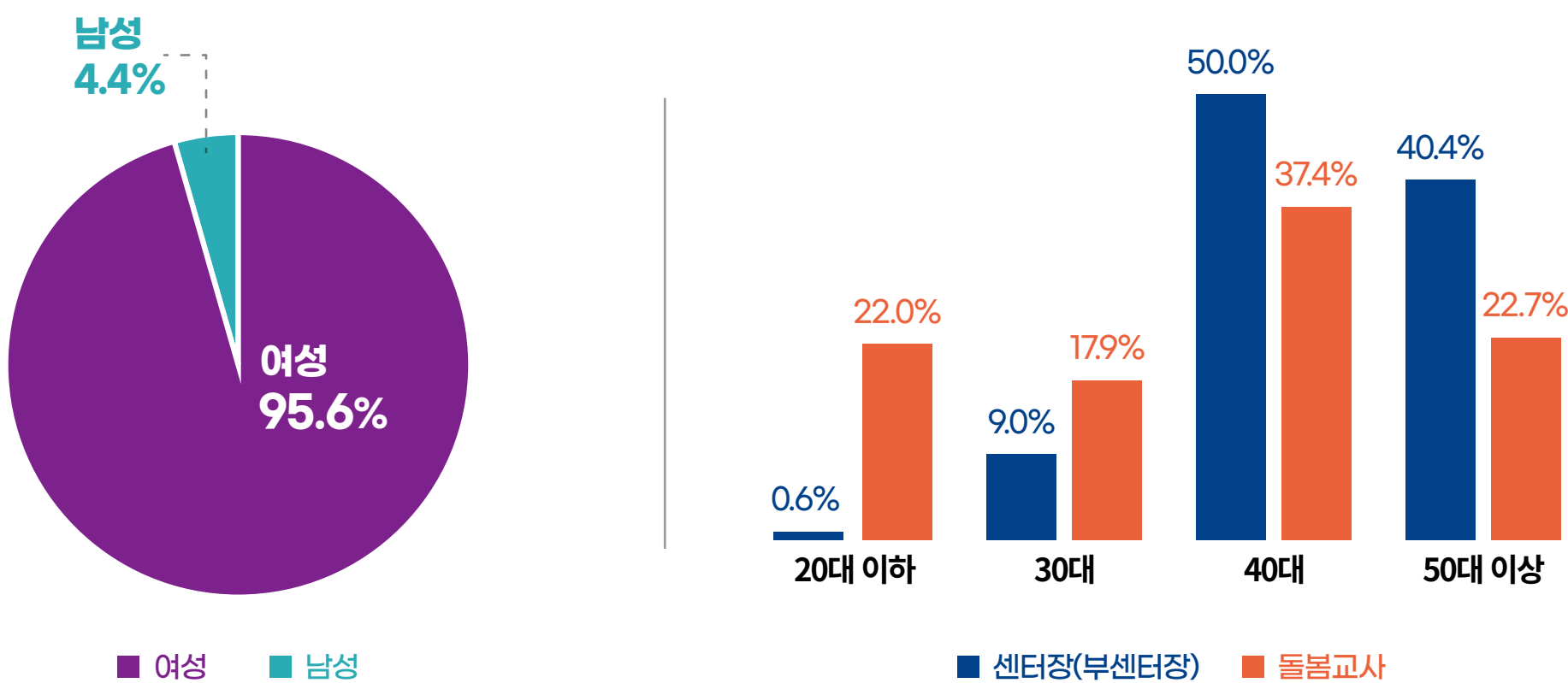
✓ 설문조사 개요

- 조사대상 | 우리동네키움센터 종사자 429명
센터장 142명, 부센터장 14명, 돌봄교사 273명
- 조사기간 | 2021. 6. 7. ~ 6. 16.

✓ 면접조사 개요

- 조사대상 | 센터장 12명, 돌봄교사 12명
- 조사기간 | 2021. 3월 ~ 8월

설문조사 응답자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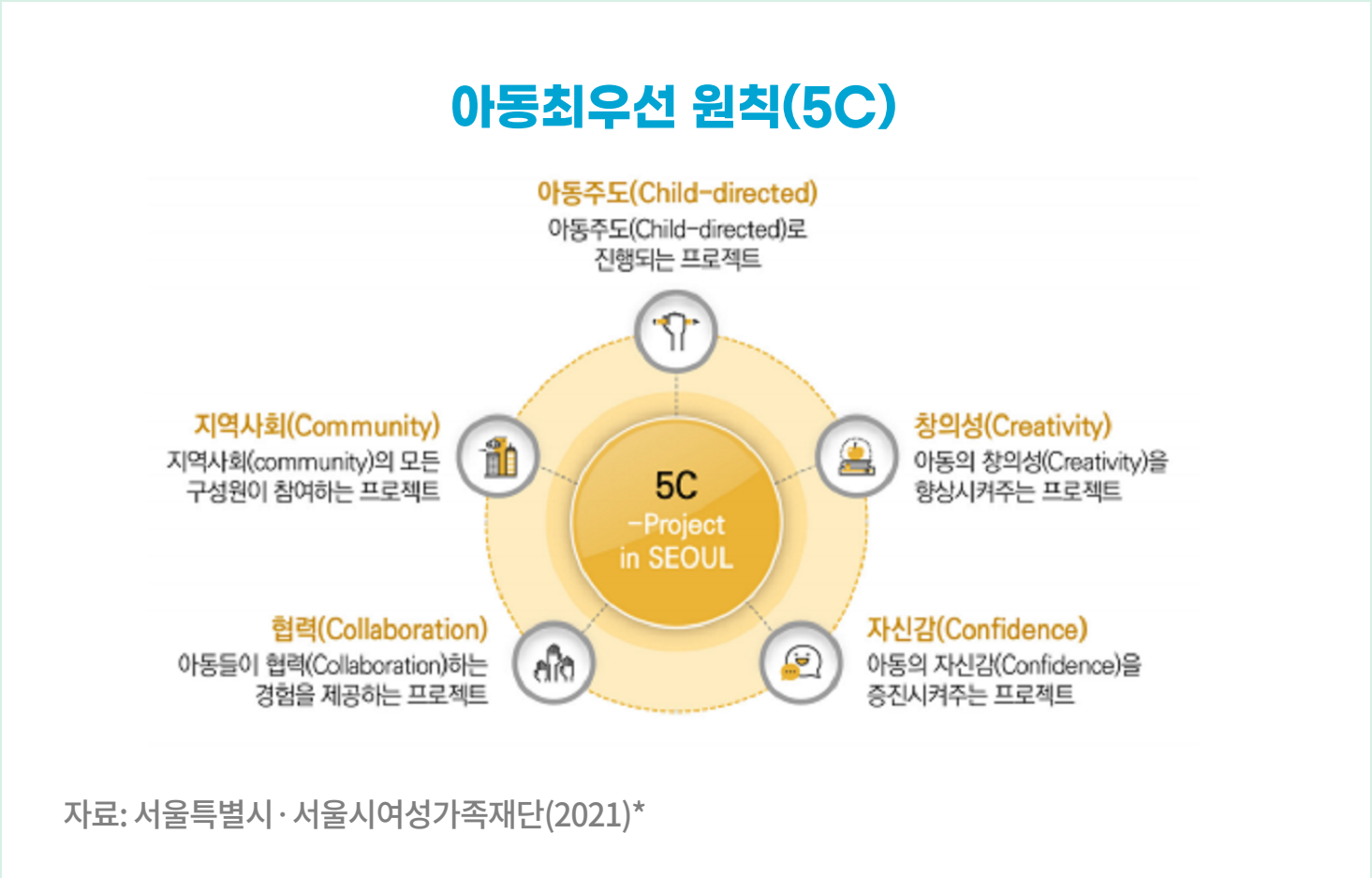


* 본 글은 2021년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과제 『우리동네키움센터 전문성 강화 방안』(류임량 · 조수진, 2021)의 일부를 요약, 정리한 것임. 본문의 세부적인 내용은 연구보고서를 참고하길 바람

우리동네키움센터에서의 전문성이란?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운영원칙

- 우리동네키움센터는 ‘놀이와 쉼’ 중심이 중점 과제로 설정되어 있음. 또한 아동최우선 원칙과 지역수요기반 원칙을 표방하고 있음. **아동최우선 원칙(5C)**은 아동주도(Child-directed), 창의성(Creativity), 자신감(Confidence), 협력(Collaboration), 지역사회(Community)를 의미함



- **지역수요기반 원칙**은 초등 연령 아동 및 부모의 돌봄 수요를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하기 위해 공적 자원과 마을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연계하는 것임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전문성

- 키움센터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 종사자는 초등돌봄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은 물론 키움센터의 운영원칙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가져야 함. 특히 아동에게 적절한 놀이를 개발·실천하고, 아동최우선 원칙을 돌봄 전반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함
- 놀이와 쉼 중심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서 적절한 놀이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함. 이는 충분한 기관 면적과 공간 구성, 외부 기관 연계를 포함함

*서울특별시 · 서울시여성가족재단(2021), 「2021년 일반 · 융합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매뉴얼」.

놀이와 쉼을 위한 시설 환경 실태

2021년 서울시 일반형 최소면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키움센터 22.9%

- 조사대상 중 일반형 키움센터 평균 면적은 109.7㎡, 융합형은 245.4㎡로 나타났음
- 서울시는 아동의 놀이와 쉼 공간 확보를 위해서 2021년에 최소면적 기준을 66㎡에서 80㎡로 상향 조정함. 조사대상의 22.9%는 80㎡ 보다 작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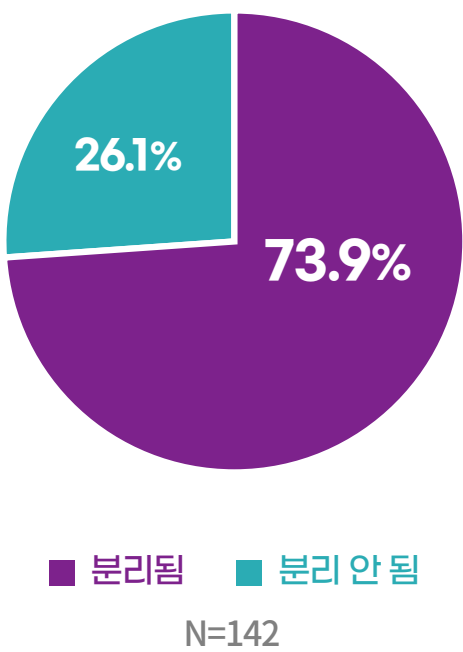
*조사대상은 모두 2021년 이전에 선정된 기관으로 2020년 일반형 최소면적인 66㎡에는 부합하였음

-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은 일반형 키움센터도 융합형 최소면적 기준인 1인당 7㎡ 이상을 권장함 (도시공간개선단, 2020)*. 정원 20명 기준으로 할 때 140㎡ 이상이 확보되어야 하며 대다수의 일반형 키움센터가 이에 미치지 못함

정적 공간과 동적 공간의 분리

- 정적 공간과 동적 공간의 분리는 아동의 놀이와 쉼을 보장하기 위해서 중요함

동적 공간과 정적 공간 분리 여부



분리된 센터 사례: 아동의 개별 요구에 부합하는 것이 가능함

"공동 활동을 할 때에는 홀에서 활동을 하고. 만약에 참여를 원하지 않는 친구들은 하고 싶은 걸 따로 놀잇감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분리된 공간에 가서 ... 그렇게 왔다갔다 하면서 좀 지켜보고, 스스로 느끼고,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했었던 것 같아요." (돌봄교사 A)

분리되지 않은 센터 사례: 아동들이 조용히 개별 활동을 하는 것이 어려움

"책을 읽고 싶다 하더라도 밖에서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 이게 집중이 안 되니까 슬그머니 나가서 앉아 있고, 애들 하는 거 보고." (돌봄교사 B)

놀이를 위한 공간 구성

- 아동의 놀이를 위해서는 공간 구성도 적합해야 함. 디자인에 초점을 둔 공간이 아동들의 놀이에 방해가 되기도 함. 놀이에 우선하여 공간을 배치하는 것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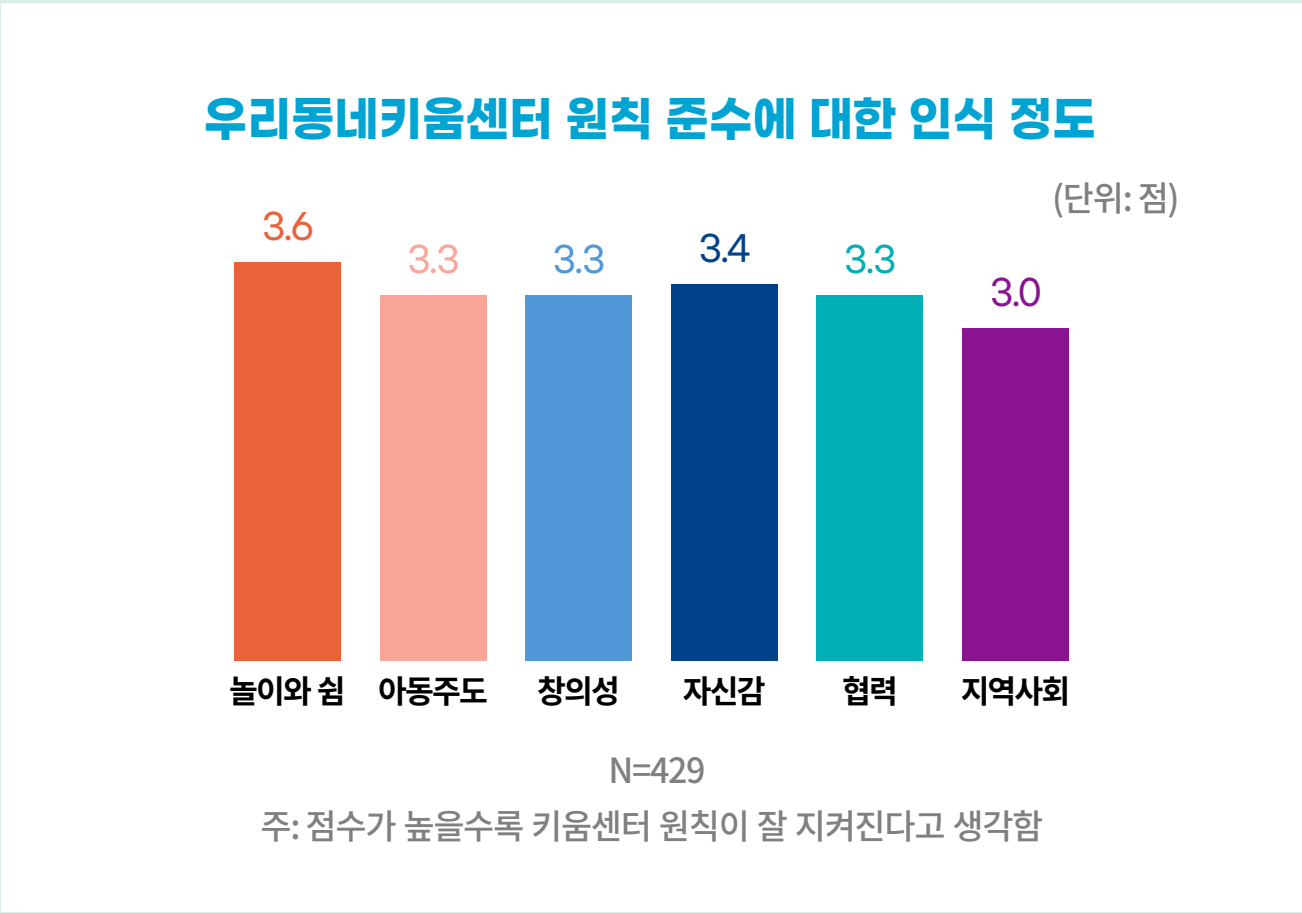
“놀이는 공간이거든요. A구 융합형 갔을 때 좋은 게 (공간이) 뺄 뚫렸어요. 놀 때는 뺄 뚫려 있으니까 위험한 것도 없고... (그런 공간이 있으면) 애들아 모아자, 모여. 우리 이렇게 놀자, 회의를 하자. 이런 게 (가능한데).” (센터장 A)

*도시공간개선단(2020), 「2020 우리동네키움센터 공간개선사업 결과 보고」.

놀이와 쉽 원칙과 실제 운영의 간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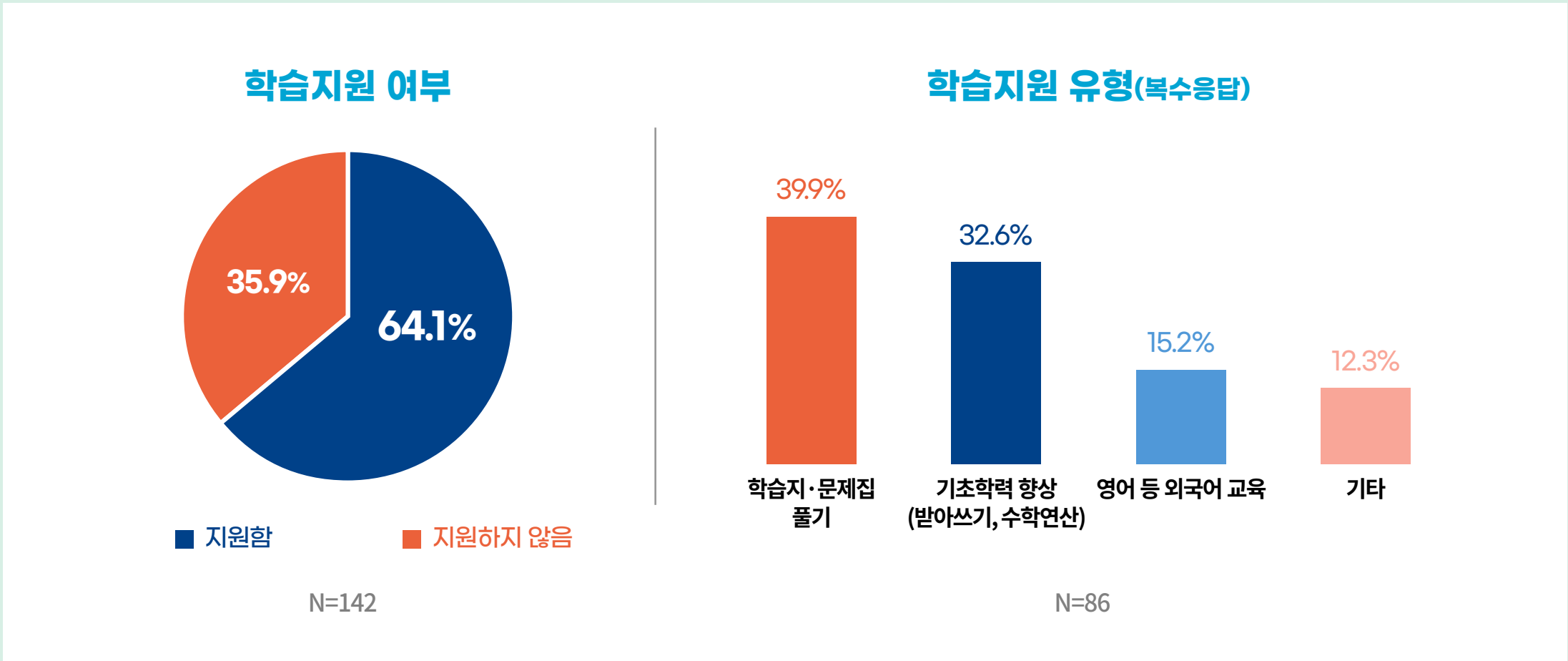
‘놀이와 쉽 지키고 있다’ 3.6점(4점 척도)

- 종사자들 대부분은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운영철학인 놀이와 쉽이 지켜진다고 인식함
- 자신감 준수는 3.4점, 아동주도와 창의성, 협력 3.3점, 지역사회 3.0점으로 나타남



그러나 놀이와 쉽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종사자 간 이해의 차이가 드러남

- 종사자들은 놀이와 쉽 원칙이 잘 지켜진다고 인식했지만 학습지원을 하는 키움센터가 64.1%로 나타나, 모순적인 결과를 보임. 학습지원 유형은 학습지·문제집 풀기가 39.9%로 가장 많았음
- 키움센터 운영철학 및 원칙에 대한 종사자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종사자 역량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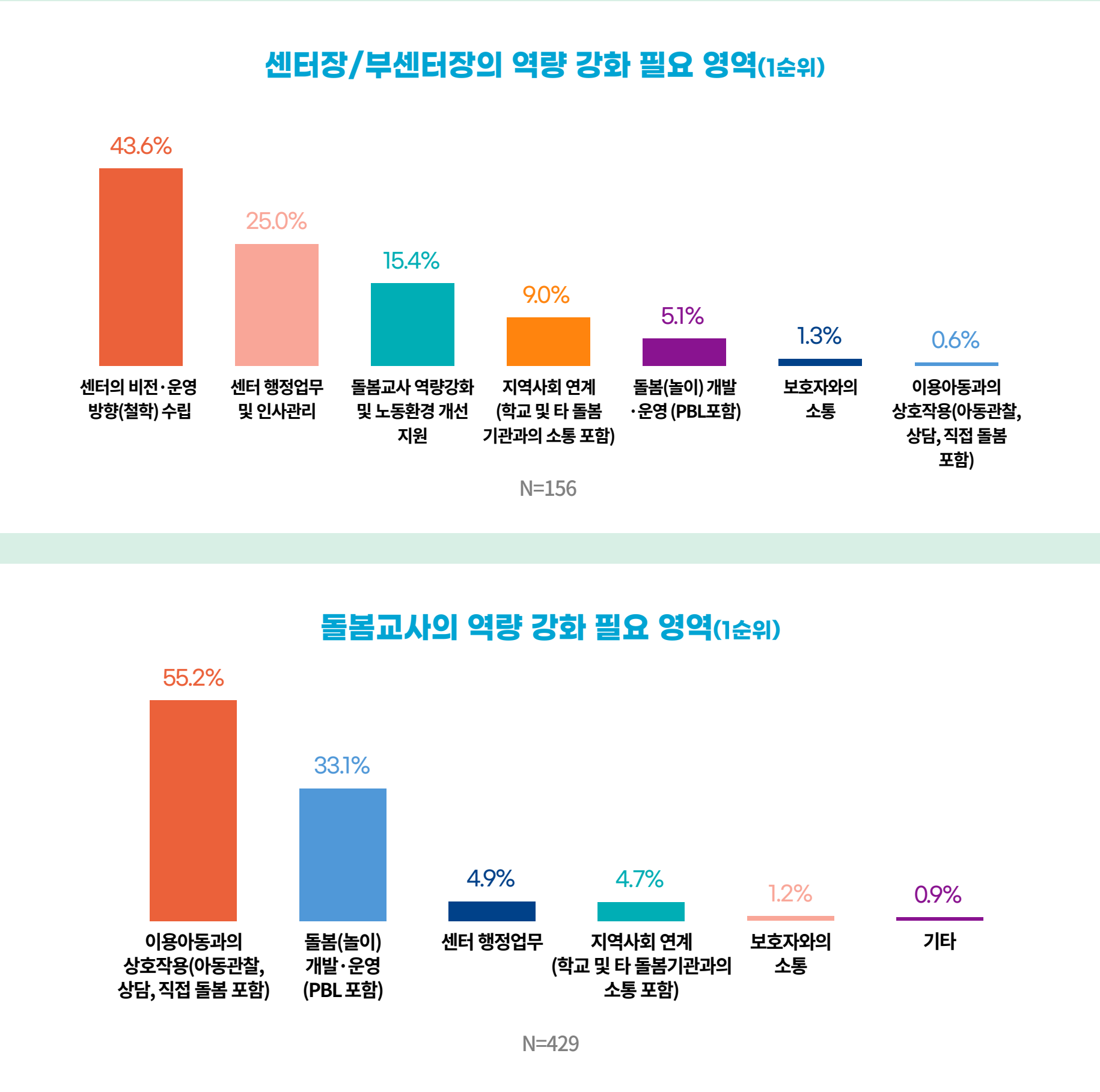
종사자 역량 강화 필요 영역

- 센터장은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책임자로서 역량 강화가 필요한 영역으로 센터의 비전·운영 방향(철학) 수립(43.6%)을 가장 많이 선택함
- 돌봄교사는 아동의 돌봄 업무를 전담하는 만큼 아동과의 상호작용(55.2%)과 돌봄(놀이)개발·운영(33.1%)에 역량 강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함

"저는 아동들이 뭔가 다툼이 일어나거나 갈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잘해줘야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걸 어떻게 조율해줘야 하는지를." (돌봄교사 C)

"객관적으로 아동관찰에서 관찰하는 법,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연수기회가 주어진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돌봄교사 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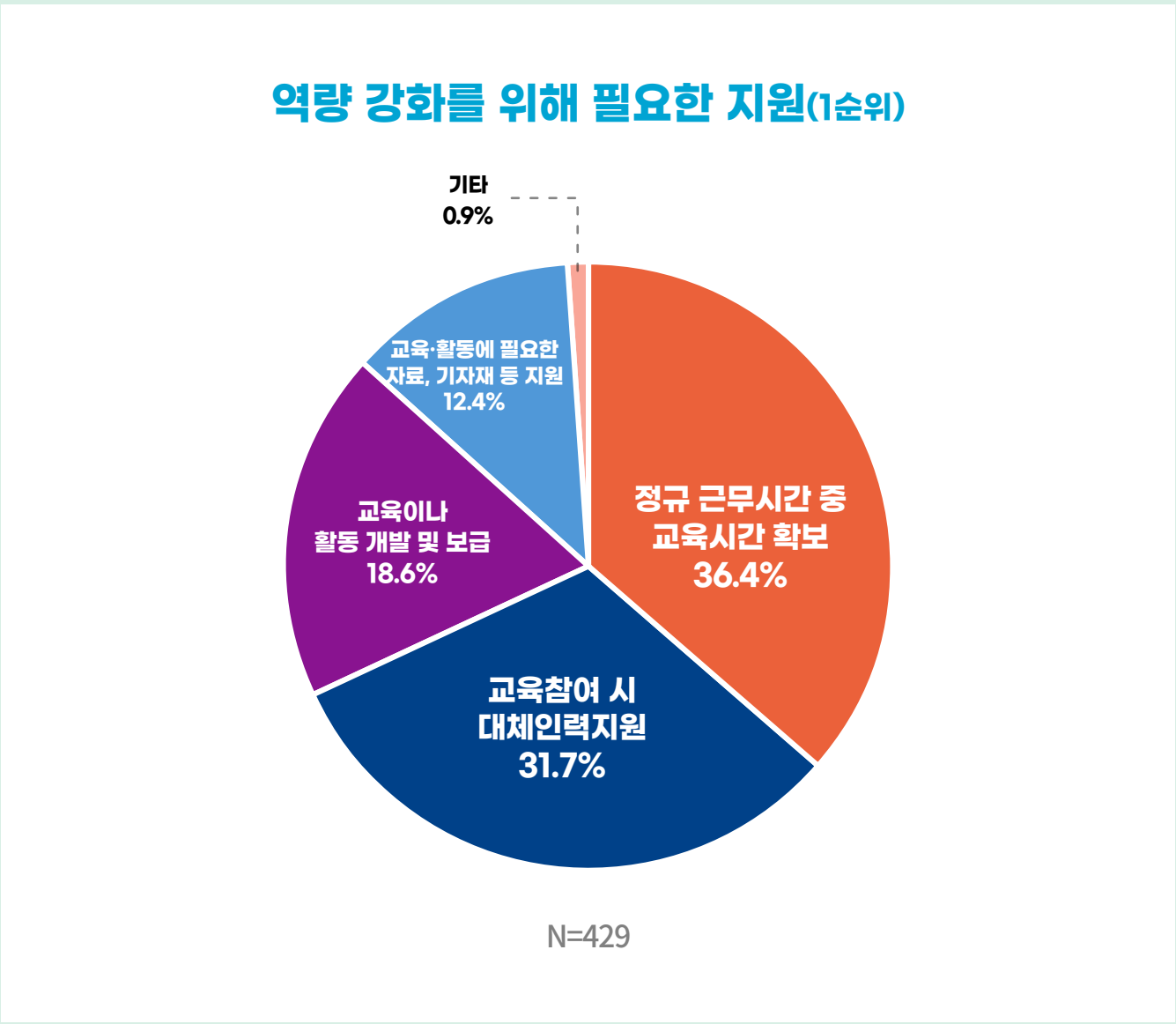
- 직위에 따라 역량 강화 필요 영역이 다르게 나타난 만큼 종사자 직위별 차별화된 교육이 필요함



종사자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지원은?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지원

- 정규 근무시간 중 교육시간 확보가 36.4%로 가장 많았음
- 교육참여 시 대체인력지원 31.7%, 교육이나 활동 개발 및 보급 18.6%, 교육·활동에 필요한 자료, 기자재 등 지원 12.4% 등으로 나타남



종사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요구

- 종사자는 새로운 놀이 교육을 포함한 돌봄 전반, 행정 업무, 지역사회 연계 등 영역의 교육을 필요로 함. 교육 단위를 다양화하거나 교육 방식을 다변화하는 것도 요구됨

- “(놀이를 위한) 다양한 감수성과 콘텐츠를 개발하게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센터장 B)
- “문제행동을 보이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대처방법이라든가.” (돌봄교사 E)
- “예산 짜는 거, 추경하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센터장들 위주로 양식을 만들어서 우리끼리, 서울 키움만이라도 그런 식으로 진행할 수 있으면.” (센터장 C)
- “지역사회 연계라고 하면 조금 세부적으로 지역기관들과 연결을 맺는 방법, 그리고 협의회에 참여하는 방법, 그리고 협의회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 소그룹으로 묶어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게 더 효과적인 방법인 거 같아요.” (센터장 D)

우리동네키움센터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 놀이와 쉼의 원칙을 구현할 수 있도록 기관과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이 요구됨
- 기관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는 아동친화적 환경을 제공하고 놀이와 쉼을 보장하는 시설 지원이 필요함
-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는 종사자 교육 개선 및 참여 지원 등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됨
- 지역사회의 놀이 환경을 유기적으로 조성하고 다양한 놀이 자원 연계의 활성화가 필요함

아동친화적 환경 제공 및 놀이와 쉼 보장

- 키움센터 설치 기준 강화 및 시설 환경 개선, 공간 확보 노력
- 특성화된 서비스 지원
- 키움센터 운영철학에 대한 인식 제고

종사자 전문성 향상

- 단계별, 직위별 차별화된 교육 진행, 놀이 공유 플랫폼 개발 등 교육 지원
- 권역별, 자치구별 수강 단위 다변화, 종사자 학습공동체 지원 등 교육 방식 다각화
- 대체인력 지원 등 교육 참여 지원

지역사회 놀이 환경 조성 및 연계 강화

- 키움센터와 놀이 환경 연계를 고려한 조성
- 지역사회 놀이 자원 연계 활성화